

# '2030 수소경제사회로 새로운 도약 이끈다'

### 전북지역 수소경제 가능성 진단·국내 수소산업 발전 대안 제시 위해 전주시·완주군·전북도, '전주·완주 그린수소 국제심포지엄' 개최

대한민국 수소시범도시인 전주시와 완주군이 국내외 전문가들과 수소경제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국내 수소산업 발전을 이끌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전주시와 완주군, 전북도는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 한국전문문화진흥회 공연장에서 '2022 전주·완주 그린수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30 수소경제사회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양 시·군이 수소시범도시로서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전북지역 수소경제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수소산업 트렌드와 수소정책 및 지역수소산업을 다루는 특별세션을 시작으로 그린수소 및 수소연료전지에 대해 논하는 1부 세션과 액화수소 및 수소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논하는 2부



'2022 전주·완주 그린수소 국제심포지엄' 포스터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이종희 전북대 교수가 진행을 맡은 특별 세션에서는 바오 유시아(Bao Yu Xia) 중국 HUST대학 교수와 마옌이(Tianyi Ma) 호주

RMIT대학 교수의 기초강연에 이어, 김성복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단장과 이흥기 우석대 교수, 강상규 서울대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이어 '그린수소 및 수소연료전지'를 주제로 열리는 1부 세션에서는 김진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과 문상진 두산퓨얼셀(주) R&D 신사업본부 상무가 각각 발표를 맡았다. 또, 김진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장을 좌장으로 임희천(쥬에프씨아이) 고문과 박진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청정수소PD, 김창희 한국에너지공단 교수, 양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에너지연구본부장, 임석희(쥬정석케미칼) 기술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펼쳐지게 된다.

끝으로 '액화수소 및 수소모빌리티'를 주제로 진행되는 2부 세션에서는 최병일 한국기계연구원 교호울에너지기술연구소장과 최서호 현대자동차(주) 수소연료전지사업부 상

무의 발제에 이어, 이영철 한국수소 및신에너지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권형균 SK(주) 수소사업추진단 부사장과 이주성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정책차장, 구영모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모빌리티연구본부장, 이상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능형농기계연구그룹 그룹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수소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성장동력으로, 운송·생산·저장 등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까지 도모할 수 있는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 수소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완주군과 함께 선정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수소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소충전소 및 수소차 보급에도 앞장서 왔다.

시 관계자는 "심포지엄이 전라북도, 전주·완주가 미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나아가 방향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완주=이종복 기자

## 자산형성지원 자립역량교육 실시

전주시,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300여명 대상

전주시가 금융자산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나섰다.

시는 28일 시청 강당에서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저소득층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자산형성지원 자립역량교육'을 개최하고, 통장사업의 기본정보와 금융 및 재무, 신용관리 등 통장유지 및 자산형성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교육에는 장현석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 강사가 초청돼 '평생월급 프로젝트'를 주제로 △효율적인 소비와 저축 방법 △연금자산 관리방법 △각종 연금 활용을 통한 올버튼 노후준비 등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희망·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정부지원금 최대 월 30만 원까지 3년간 매월 통장에 적립해주고, 일정 지급요건을 갖추게 되면 만기 시 적립금 전액과 이자를 지원해주는 보건복지부 시행사업이다.

전주지역에서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570여 명이 통장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규통장사업인 '희망저축계좌II'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최종 결정되는 오는 10월 이후에는 가입자 규모가 3000여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신청장사회연대경제국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 세대에 통장사업은 경제적 지원과 소중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사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싱가포르 대학 학생들, 전주서 관광·학술 교류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텍대학의 학생들이 전주를 방문해 전주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전주의 문화를 즐겼다.

전주시는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텍대학 학생 및 관계자들이 지난 19일부터 28일까지 9박 10일 동안 전주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K-pop 댄스와 한국어 수업, 비빔밥 체험, 로컬문화 체험 등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활동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교류를 통해 양 지역 대학생간의 교류는 우리지역 대학생들의 현지취업 및 인턴십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에서 국제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12월부터 한국소방안전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진행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지난해 11월 30일에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소방사에서 받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올해 12월 1일부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업무는 관할 소방사에서 실시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습과 시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한 실무교육 등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업무 처리로 인하여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kfsi.or.kr) 또는 각 시·도지부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신고 업무 이관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서에서도 일정 기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관 사항을 누리집에 게재해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 '단종어진 영인본' 전주 어진박물관에 모신다

전주시·영월군, 표준영정 100호 단종어진 영인본 기증식 가져

단종어진 영인본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모습이 담긴 조선태조어진(국보 317호)과 함께 어진박물관에 모셔지게 됐다.

전주시와 영월군은 28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명서 영월군수 등 양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영정 100호 단종어진 영인본(影印本)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 단종어진 기증은 영월군이 태조어진과 어진봉안 유물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 건립된 국내 유일의 어진박물관에 단종어진 영인본을 기증함으로써 영월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의 위



전주시와 영월군은 28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명서 영월군수 등 양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표준영정 100호 단종어진 영인본 기증식'을 가졌다.

상을 정립하고 단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준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성사됐다.

단종어진은 2021년 4월 1일자로 선형정부표준영정 제100호로 공식 지정됐으며, 단종어진의 용모는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기록과 국보 317호 조선태조어진의 용안,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세조어진 초본의 용안을 참조해 추사(趙思)로 그려졌다. 완성된 단종어진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장릉(단종의 능) 경내에 위치한 단종역사관에 봉안돼 있다.

시는 이번 기증식에서 영월군에 기증증서를 전달했으며, 기증받은 단종어진 영인본을 현재 진행 중인 어진박물관 증축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하 어진실에 모셔져 있는 6분의 어진과 함께 새로 조성될 1층 어진실에 함께 전시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조선왕조의 분향인 전주에 또 한 분의 어진을 모실 수 있게 되어 영광"이라며 "단종어진을 기증해준 영월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시, 전기굴착기 구매 비용 최대 2000만원 지원

전주시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굴착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6000만 원이 투입되는 '전기굴착기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총 3대의 전기굴착기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주시로 3개월 이상 연속해 둔 전주시 거주자 또는 전주시에 본사와 지사 등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다. 단, 전기굴착기 제조·수입자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대당 최대 2000만원이며, 구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제조사를 통해 환경부 전기차 구매지원 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구매자는 전기굴착기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사에 납부하고 제조사는 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063-281-2324)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